

**Keywords:** Jecheon Silleuksa Temple Three-story Stone Pagoda, Mugujeonggwang Great Dharani Sutra, Esoteric Buddhism, Sarira reliquary, Mugujeong pagoda, dharani



연구논문

고려시대 명문와에 보이는 瓦匠

이유섭\*

- I. 머리말
- II. 와장이 보이는 명문와
- III. 와장의 유형
- IV. 명문와의 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와장은 기와를 만드는 장인이며, 기와는 건물의 지붕을 마감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부재이다. 기와는 대개 권위건축물에만 한정적으로 소비되며, 그 건물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와가 가진 위상을 가늠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기와에 대한 연구는 문양을 중시하는 미술사적 시각과 제작기법에 무게중심을 두는 고고학적 관점이 교차하고 있다. 그런데 문양이나 제작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와를 제작했던 조직에 대한 복원이다. 사료의 영성함은 고대사회를 복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와에서 명문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 통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실장

주목을 요한다. 문자 기와는 후대에 정리되는 문헌사료와는 달리 당대인이 직접 서사했다는 점에서 1차 사료에 비견될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주로 제작 일시, 시주자, 제작처, 공급처, 제작자 등인데, 제작자인 와장의 경우 기와를 제작하던 조직체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문자 기와에서 확인되는 와공들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官匠과 僧匠, 私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관장이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기와를 생산하였다면, 승장은 승단의 통제아래 사역되었다. 이에 반해 사장은 육요, 와소 등의 공적 생산체제가 이완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적 생산체제가 이완되면서 私匠은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에서 출토된 고려와장명 기와가 대표적이다. 기와에 국가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서 국내 유통용이 아니라 대외용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판매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장의 등장 배경에는 과중한 수탈과 권력자의 늑탈로 인한 와소의 해체에 있다. 국가적 차원의 공적 생산체제의 이완은 기와를 판매의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단적으로 12세기에 최인의 속량에 ‘贖銅瓦徵’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관장과 승장들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별와요로 대표되는 기와가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국가의 조와체계에 흡수된 인물들이었다.

주제어 : 명문와, 官匠, 僧匠, 私匠, 瓦匠

## I. 머리말

기와는 목조건축물에 소비되는 단순한 건축부재이지만, 권위건축물에 한정되어 공급되었다. 이로 인해 기와건물과 초가건물 사이에는 격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자연스레 거주자의 신분이 건물에 반영되었다.

그간 기와연구는 제작방식, 편년 등에 관심이 집중된 고고학적 방법론과 연화문의 양식, 문양 등에 관심을 기울인 미술사적 방법론이 평행을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와의 지역색이나 문양의 변화, 시기별 제작방식의 차이 등은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런데 기와 가운데 문자가 새겨진 명문기와도 흔치 않게 출토되어 주목된다. 출토자료는 고고학의 영역이지만 문자는 문헌에 해당되는 이중성을 띤다. 일본에서는 지하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를 ‘文字情報史料’이란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sup>1)</sup> 사실 문자는 기물의 사용과는 별개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 기재된다. 대부분의 문자는 공급처, 제작일, 제작공방 등을 적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기와를 직접 제작한 사람도 확인된다. 기와를 만든 사람, 곧 와장은 현장의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다. 명문기와의 분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심화 된다면 조와 조직, 수급 양상의 변화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명문와의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시간 축을 고려시대에 고정시켜 각지에서 출토된 명문와 속 와장의 흔적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된 와장과 관련된 명문와를 정리해 보았다. 유적의 성격은 와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 III장에서는 명문와의 분석을 통해 와장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고려 시대 수공업의 양상은 관영수공업, 사원수공업, 所 등의 특수 촌락, 민간 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영 수공업의 경우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생산 전반을 간섭하는 것이며, 장흥 상방촌A ‘京瓦匠’의 용례처럼 중앙 관청에 소속된 인물도 확인된다. 민간의 경우 시장 매매를 염두에 두고 생산한 경우이다. 한편 승장의 경우 大師, 重大師 등과 같이 승계를 소지한 인물들도 확인된다. 사원의 중수, 영선 등은 전문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적인 생산에 관여했다기 보다 傭人이나 匠人들을 통제하며 기와 생산을 독려한 인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와장이 적힌

1) 吉村武彦, 2003, 「墨書土器研究の現在-データベース化された墨書土器-」, 『駿台史学』 117.

명문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와를 생산한 장인들은 국가의 조와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인물들이다. 문헌에는 이러한 장인들이 가혹한 공역에 시달리다 역에서 이탈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고려시대 명문와를 통해 장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었다. 한정된 고고자료를 확대 해석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와장이 보이는 명문와

기와는 흙의 채취에서부터 성형, 건조, 소성 등 의외로 복잡한 분업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지붕에 올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천 때가 필요하다. 기와생산에는 기술력과 조직력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다. 운반과정에서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사찰이나 궁궐 조영과 같이 다량의 기와가 필요할 경우 공사 현장 인근에 瓦窯를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다. 기와는 번와작업을 통해 자체 공급되기도 하지만 간혹 역모자의 破家瀦宅, 民家나 公私屋의 몰수, 혹은 自家의 회사 등에서 나온 것을 재이용하기도 한다.<sup>2)</sup> 1년 중 기와의 생산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늑탈이나 기진은 건물 준공의 기한을 단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려시대 육요나 조선전기 별와요의 운영에서 추정할 수 있듯 기와는 항상 부족했던 것 같다. 도성건설이나 사원의 창건 등 수요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기와의 수명을 고려하면 주기적인 중수가 필요했다.

기와에는 명문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명문은 주로 제작일, 제작공방, 공급처, 시주자 등이지만 제작자가 명기되기도 한다. 기와에 명문을 새기는 이유는 공급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강했을 것이다. 그 선상에서 와장의 이름을 새기는 것 역시 일종의 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기와는 그 생산에

---

2)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56쪽.

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붕에 수 천 매가 소비되고, 연중 생산기일과 소비처가 제한된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능탈이 가능하므로 할당량이 부여된 공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여 작업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기와의 명문에서 瓦匠이 확인된 유적들을 일별해 보려 한다. 유적은 대체적으로 연대를 중심으로 적기하였는데, 연대 판정에는 명문의 시문방법, 제작기법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명문의 시문방법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3)</sup> I유형은 기와에 타날작업을 한 다음 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연대는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에 나타난다. 그리고 II유형은 정방형의 방곽 내에 2행으로 명문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기는 10세기 초부터 11세기 초에 주로 나타난다. III유형은 세장방형의 방곽 안에 1행의 명문이 종서된 것으로 10세기 말에서부터 11세기 말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IV유형은 방곽 없이 단순히 명문만 있는 형태로 연대는 10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작기법 가운데 경주지역의 경우, 타날판은 10세기 이후부터는 장판타날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寺名이 있는 기와가 장판타날기법이 출현한 이후에 나타나는 점<sup>4)</sup>도 유의된다. 덧붙여 일부 문자 기와에서 보이는 ‘瓦草’는 기와를 의미하는데<sup>5)</sup>, 이러한 “□□草”명기와는 太平興國연호와 짝하여 10~11세기에 걸쳐 한시적으로 유행하였다.<sup>6)</sup> 따라서 명문의 시문방법, 제작기법 등으로 제작 시기를 제한시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와장과 관련된 명문와가 출토된 유적은 전국적으로 24개소 정도에 달하는 것 같다.

3) 柳煥星, 2010, 「慶州 出土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

4) 徐五善, 1985,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동주, 2013,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 -문자 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古文化』 82.

6) 菱田哲郎 外, 1994,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岬山寺所用瓦の考察』 靑丘學術論集4, 41쪽.

1. 보령 천방유적(10~11세기), 사지

우선 이 유적은 보령 용수리에 위치하며, 다목적댐 수몰예정지로 편입되어 발굴 조사되었다.<sup>7)</sup> 여기서는 ‘靑元’, ‘永興寺’, ‘造瓦草’, ‘重創’ 등의 문자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상관성을 고려하여 全文을 조합하면 ‘靑元/永興寺造瓦草重創’으로 복원할 수 있다(노명호 외, 2004, 321쪽). 명문의 구성은 와공(靑元), 상위사찰(永興寺), 목적어(造瓦草), 종결어(重創)로 되어있다. ‘瓦草’라는 용어가 10~11세기에 걸쳐 한시적으로 유행하였으므로,<sup>8)</sup> 기와의 연대는 고려전기로 추정된다. 판독문을 제시한 자료 등에서는 ‘造瓦草’로 판독했으나 送은 오히려 造에 가깝다. 오히려 造瓦명 기와들이 전국적으로 출토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送瓦는 造瓦의 오독이라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와를 공급한 주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와를 만든 영흥사는 천방유적보다 상위의 사찰로 보이며, ‘영흥사에서 만든 기와로 중창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2. 안성 奉業寺址(958년), 사지

경기도 안성 죽산리에 위치한다. 奉業寺는 태조왕건의 진영이 봉안된 진전사원이다. 여기서는 ‘(發令)戊午年瓦草作伯士必(攸?)毛’, ‘…○年乙酉八月日竹… …里瓦草(伯士)能達 毛’명 기와가 출토되었다(京畿道博物館 2002). 보고자는 기와의 제작시기를 958년으로 추정하였다. 명문은 의미를 알기 어려운 發令, 간지(戊午年), 목적어(瓦草作), 장인명 칭(伯士), 인명(必(攸?)毛)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은 ‘(發令)무오년에 기와를 만드는데, 백사 필(유?)모가 하였다.’로 해석된다. 이와 동일한 기와가 안성 장릉리사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장릉리사지에서는 瓦草 두 글자만 남은 와편이 출토되었지만 타날편이 같으므로 동

7) 公州大學校博物館, 1996, 『千房遺蹟』 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査報告書①, 146쪽.  
 8) 菱田哲郎 外, 1994,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岬山寺所用瓦の考察』 靑丘學術論集4.

일한 기와로 판단된다. 백사의 직책을 가진 와공이 사찰에 부속되어 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 3. 안성 죽주산성(고려전기), 산성

안성 죽주산성에서는 장인을 의미하는 ‘伯士’명 명문화가 출토되었다. 伯士는 신라시대 기술직 博士에서 유래하며 官匠을 가리킨다. 안성 봉업사에서 ‘(發令)戊午年瓦草作伯士必(倣?)毛’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봉업사지 기와는 958년의 연대를 가진다. 이러한 백사란 용례는 나말여초기에 주로 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죽주산성 출토 기와는 고려전기일 가능성이 높다.

### 4. 하남 교산동 건물지, 관청

하남 교산동 서쪽 건물지에서는 장인의 명칭과 관련된 ‘哀宣伯士’, ‘成達伯’명 기와가 각각 출토되었다.<sup>9)</sup> 어골문의 장판타날판 방곽안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成達伯’의 경우 ‘成達伯[士]’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명문의 구성은 인명(哀宣, 成達), 장인명칭(伯士)으로 되어 있다. 교산리 건물지는 통일신라말-오허려 후삼국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에 초축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속하였다. 그 와중에 백사명 기와는 건물의 초축연대와 관련된 기와이다. 보고자는 인명(哀宣, 成達)을 장수의 이름으로 보았지만, 백사가 동반되므로 공인이 분명하다. 후대 유물로 ‘廣州客舍’명 기와가 출토됨에 따라 공적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초축 당시의 성격을 가늠하기에는 제한된 감이 없지 않다. 다만 “官上”명 문자 기와 등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건물의 성격은 公廨施設의 범주에 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 5. 대전 상대동-중골유적(974년), 관청

한편 지방 호족들과 연계된 경우도 확인된다. 대전 상대동-중골 유적에서는 대규모 고려시대 건물이 확인되었다.<sup>10)</sup> 이곳에서는 ‘大匠僧’,

9)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河南 校山洞 建物址』學術調查報告 第48冊.

‘守山’, ‘前副戶長 田彦公?/前倉正 李福’, ‘…言南無三滿多沒…’, ‘…占勿加 造□, 龍泉 住?持?存?’, ‘度嚙地尾娑婆何’, ‘甲戌年九月一日元作’ 등 여러 점의 문자 기와가 출토되었다. 여기서 대장승은 기와를 만든 승려라는 의미이며, 전부호정과 전창정 등 지방 유력자, 다라니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守山의 경우 인명으로 여겨지는데, 대장승의 이름으로 추정된다.<sup>11)</sup> 건물의 정확한 성격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SD 1호가 중심건물이 분명하지만, 전직 지방유력자가 시주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청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다. 불교적 용어가 강하다 하더라도 건물의 평면구조로 보았을 때 사찰도 아니다. 전부호장의 성이 전씨이고, 전창정의 성이 이씨인데, 두 성 모두 유성현의 토성이었다.

건물의 조영연대는 고려 중기(12세기)에 유행하는 일휘문 수막새가 극히 소량만 출토된 점과 막새의 드림부 접합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고려 전·중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SD1·2호에서 출토된 ‘甲戌年九月一日元作’ 명 평기와의 경우 안성 봉업사에서 출토된 평기와의와 동일한 타날판으로 제작되었고, 구체적인 시기는 974년(광종25)으로 비정된다.<sup>12)</sup> 이 두 인물은 고려시대 사찰과 관계없이 행려자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院主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廣道院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지만<sup>13)</sup> 정확한 명칭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 6. 영동 계산리유적(982년), 거관

영동 계산리유적에서 출토된 문자 기와는 2행 중서로 명문이 배열되어 있다. 조사단은 문자의 판독을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瓦草

10)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 유적』.

11) 김갑동, 2011,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 31, 63쪽.

12) 정해준, 2017, 「대전 상대동유적(SD 1호, 2호) 발굴조사 성과」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 2017년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학술대회 자료집, 25쪽.

13) 김갑동, 2011,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 31

匠水鳥水流矣’으로 하였다. 이와 동일한 기와가 출토된 유적으로 永同 邑城, 永同 錦城寺址, 安城 奉業寺址, 安城 長陵里寺址 등이 있다. 명문의 내용은 ①의 경우 기와의 제작일을 연호, 연월일의 순으로 나열하였고, ②는 행정구역(竹州), 장인명칭(瓦草匠), 이름(水鳥, 水流), 종결어(矣)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그래서 명문을 2행 모두 유기적으로 풀어보면 ‘태평흥국 7년(982년, 歲次가) 임오(년인) 3월 일, 죽주의 와초장은 수오와 수완이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영동 계산리 유적이 사찰이나 지방관부가 아닌 호족의 居館으로 파악됨<sup>15)</sup>에 따라 이 와공들은 죽주를 기반으로 둔 호족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죽주는 궁예가 세달사를 떠나 태봉을 건국하기 전까지 기와의 유력 호족인 箕萱의 근거지였던 점<sup>16)</sup>에서 나말여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 7. 완도 범화사지(추정 1063년), 사지

전남 완도 범화사지에서 출토된 문자 기와는 1행 중서로 ‘癸卯三月大匠惠印’이 확인된다(文化財研究所 1992). 명문의 구성은 간지(癸卯三月), 장인명칭(大匠), 인명(惠印)으로 판독된다.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공반출토된 기와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연호가 확인된다. ‘豆淡乙□□, □統三年癸□’로 판독되는 기와가 그것인데, 연호 ‘□統’과 간지 ‘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요나라 天祚帝가 사용한 ‘乾統’이고 간지는 ‘癸末’이다. 여기서는 토수기와만 출토되었는데, 이 기와의 소멸 시점이 1113년이라는 견해<sup>17)</sup>를 수용한다면 ‘癸卯三月大匠惠印’명 기와는 그 이전으로 소급된다. 그렇다면 제작시기는 1063(癸未)년이 가장

1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永同 稽山里遺蹟』 學術研究叢書 第5輯.

15)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永同 稽山里遺蹟』 學術研究叢書 第5輯.

16)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 “以眞聖王即位五年, 大順二年辛亥, 投竹州賊魁箕萱. 箕萱侮慢不禮. 善宗鬱不自安, 潛結箕萱麾下元會·申煊等爲友.”;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17)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력하다. 이와 동일한 명문의 기와가 진도 용장산성, 강진 사당리 와요지, 신안 신용리 건물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한편 청해진에서도 ‘癸卯’명 와편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기와로 여겨진다. 법화사지 건물지 1에서는 ‘高林寺造成住持大師’명 기와도 출토되었다. 법화사를 중창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승려일 것이다.

### 8. 양양 진전사지(1113년), 사지

양양 진전사지에서는 1974년 3층 석탑지 부근 발굴조사에서 1행 중 서된 ‘天慶三年癸巳年四月日尤造□□造管’로 판독되는 수키와가 출토되었다.<sup>18)</sup> 명문은 연호(天慶三年), 간지(癸巳年四月日), 인명(尤造), 종결어(□□造管)로 되어 있다. 여기서 천경은 요나라 연호로 그 3년은 예종 8년, 1113년이다. 곧 ‘天慶三年 癸巳年 四月日에 尤造가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와는 미구기과이다. 고려시대는 토수키와가 주류를 이루다가 ‘天慶三年’명 기와를 기점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다.<sup>19)</sup>

### 9. 장흥 상방촌A(1150년), 관청

탐진다목적댐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조사하였다.<sup>20)</sup> 출토유물의 양상을 보면 11~13세기대의 유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명문와는 ‘庚午任內有耽鄉□□□□一’, ‘主戶長’, ‘庚戌二月日造主事審別將同正表[문양]’, ‘壬辰年厚心堂主散員同正表元載’, ‘愿心堂主散員同正表元載京瓦匠莫志’, ‘三□’ 등 16종이 출토되었다.<sup>21)</sup> 이 가운데 고려시대 有耽鄉의 존재를 실증하는 자료나 ‘三□’의 경우 장흥 신월리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靑

18) 檀國大學校 中央博物館, 1989, 『陳田寺址』古蹟調查報告 第12冊.

19)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쪽.

20) 목포대 박물관, 2008, 『장흥 상방촌A유적II-건물지-』.

21) 고용규, 2007,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고용규, 2008, 「장흥 상방촌 유적의 성격」 『장흥 신월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銅印을 답인한 것이다. 기와 명문에 보이는 ‘主戶長’의 직위는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호장은 租稅나 貢賦 수취, 역역 동원 등을 관리하였다. ‘主戶長’은 ‘上戶長’의 이칭일 가능성이 있다. 상호장이 호장을 통솔하며 지방관을 보좌하는 인물이라는 점, ‘三□’명 명문화의 인장 실물이 인근 신월리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지인물에 의해 번와작업의 지휘,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上戶長은 印信을 소지하고 공무를 집행하였으므로 신월리 1호의 묘주를 그에 비견되는 인물로 볼 수 있겠다. 기와의 상한연대는 상호장제가 제정된 고려 예종대인 1106~1121년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오년은 1150년으로 볼 수 있다.

#### 10. 중원 崇善寺址(1182년), 사지

충북 중원군에 위치한 崇善寺址 혹은 希國寺址라 불리는 곳에서는 명문화편이 수습되었다.<sup>22)</sup> 명문을 조합해 보면 3행 종서로 ‘大定十二年壬寅四月日/□□□監役副都監大師性林大匠暢交/□□□□□□□金堂改蓋’로 추정된다. 명문의 구성은 연호 및 간지(大定十二年壬寅四月日), 직책 및 장인명칭(□□□監役副都監大師, 大匠), 인명(性林, 暢交), 종결어(□□□□□□□金堂改蓋)로 되어 있다. 대정은 금의 연호이며, 12년은 고려 명종 12년인 1182년에 해당된다. 명문의 내용은 ‘대정 12년 임인년 4월일에 □□□監役副都監大師性林과 大匠暢交가 □□□□□□□금당을 다시 덮었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대선사 性林은 승려가 확실하고, 대장 暢交의 경우 승선사와 모종의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와의 출토지인 승선사는 고려 광종대 왕이 모후의 명복을 비는 사원으로 등장한다.<sup>23)</sup> 모후 先妣는 광종의 어머니로서 충주 호족 유금필의 딸이다. 그러므로 승선사는 충주 호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藥城同好會, 1995, 『승선사지』 지표조사보고서.

23) 『高麗史』 卷2, 世家2; “(甲寅)五年 春 創崇善寺, 追福先妣.”

11. 용인 전대리·유운리(1186년), 미상

건물지에서는 건물의 성격과 시기를 알 수 있는 5점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香水寺’ ‘大定二十六年’ ‘香水寺□年’ ‘瓦草本丙寅’ ‘大匠金順造’ 등의 명문와가 확인되었다. 大定二十六年’은 명종 2년(1186)이다. 향수사는 靑道 雲門寺 경내의 圓鷹國師碑에 기록된 學一(1052~1144)의 행적과 조선시대 문헌에 사명이 확인된다.<sup>24)</sup> 학일은 고려전기 선종을 떨쳤던 인물이며, 그가 13살 때인 1064년 무렵 향수사에 주석한 惠습스님을 친견했다고 한다.

12. 익산 오금산성(1248년), 산성

익산 오금산성에서 출토된 문자 기와는 방곽 안에 2행 종서로 되어 있는데, ‘戊申年二月日/大匠以米造’로 판독된다.<sup>25)</sup> 문장은 간지(戊申年二月日), 장인명칭(大匠), 인명(以米), 종결어(造)로 구성된다. 내용은 “무신년 2월일에 대장 以米가 (기와를) 만들었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유사한 기와가 미륵사지에서도 출토되었다. 명문 구성의 유사성에서 무신년은 1248년일 가능성이 크다.

13. 익산 미륵사지(1248년), 사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자 기와이며 총 70여점 가운데 50점이 북편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sup>26)</sup> 2행 종서로 ‘戊申年二月日/大匠隣才造瓦’란 명문이 확인된다. 문장의 구조는 오금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와 같다. 문장은 간지(戊申年二月日), 장인명칭(大匠), 인명(隣才), 종결어(造瓦)로 구성된다. 내용은 ‘무신년 2월일에 대장 隣才가 기와를 만들었다.’로 해석된다. 고려초의 전형적인 어골문이 확인되지 않고, 집선화된 문양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간지의 무신년은 1248년으로 볼 수 있다.

2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龍仁縣; “香水寺. 在縣東二十里.”

2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研究所, 1985, 『益山五金山城』 遺蹟調查報告 第12冊.

26)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 學術研究叢書 第13輯.

## 14. 日本 沖繩 浦添城(1273년), 성곽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에서 출토된 ‘癸酉年高麗瓦匠造’명 기와는 이흥직에 의해 한국학계에 소개되었다.<sup>27)</sup> 2행 종서로 간지(癸酉年), 국명(高麗), 장인명칭(瓦匠), 종결어(造)로 구성된다. 계유년은 1273년 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라는 국명을 칭한 것이 이채로우며, 이는 기와의 대외성을 웅변해준다고 생각된다.

## 15. 오산 가장동(1300년), 미상

오산 가장동 유적은 크게 3차례에 걸쳐 건립, 폐기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3차 건물에서는 기단시설이 있었고, 일상생활을 위한 취사, 난방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 여기서는 ‘大德四年八月日’, 大德四年八月日/南書宣<sub>官</sub>全, ‘大德四年’명 기와가 출토되었다.<sup>28)</sup> 대덕4년은 1300년에 해당한다.

## 16. 군위 인각사(1241년 혹은 1361년), 사지

군위 인각사에서는 ‘辛丑二月七日瓦匠□’ 명문와가 출토되었다.<sup>29)</sup> 무문의 장판에 문자를 새긴 타날판을 이용하였는데, 문자는 좌서 양각되어 있다. 명문의 구성은 간지(辛丑二月七日), 장인명칭(瓦匠), 장인의 이름(□)은 일부 획이 확인되지만, 결실되어 알 수 없다. 명문의 내용은 ‘辛丑二月七日에 瓦匠 □(□가 기와를 만들었다.)’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일연선사가 주석하면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에서는 국존으로 추대하여 대우하였다. 일연선사 주석이후 크게 사세가 확장되었으므로 신축년은 1241년 혹은 1361년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초축연대는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연의 하산소로 지정된 후 사세가 크게 확장된 것 같다.

27) 이흥직, 1968, 『琉球에서 發見된 「高麗瓦匠」 在銘瓦』 『미술사학연구』 9권 7호.

2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8, 『오산 가장동유적』.

29)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華山 麟角寺』 博物館 叢書22.

17. 괴산 외사리사지, 사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외사리사지에서는 정식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지표 수습한 기와 가운데 2행으로 좌서 양각된 방곽안에 ‘□□/大匠’이란 명문이 확인되었다.<sup>30)</sup> 명문의 구성은 인명(□□), 장인명칭(大匠)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는 장인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연대는 알기 어렵다.

18. 여주 원향사지, 사지

여주 원향사지 18호 건물지에서는 ‘元香寺瓦匠僧順文’명 암키와가 출토되었다.<sup>31)</sup> 명문의 구성은 사찰명(元香寺), 장인명칭(瓦匠僧), 인명(順文)으로 되어 있고, 명문의 내용은 ‘원향사의 외장인 승려 순문(이 기와를 제작하였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와의 출토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주지역의 逸名寺址에 사명을 확정해 주었고, 금석문에 보이는 사원의 존재를 환기시켰다. 원향사는 영월 흥령사 징효대사보인탑비(944)에 “眞聖大王御宇之二年也, 特遣溟州僧正釋道·東宮內養安處玄等, 遠降綸言, 遙祈法力. 仍以陰竹縣元香寺, 永屬禪那別觀.”란 구절이 확인되며,<sup>32)</sup> 진성여왕대 선종사찰로 확인된다. 조사단은 창건 시기를 늦잡아도 9세기, 폐절 시기는 12세기로 보았다. 원향사에서 출토된 기와의 철면 문양은 어골문과 사격자문이 채택되어 있고, 명문의 외곽은 긴 방곽으로 되어있다. 절대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연호가 없어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19. 중원 정토사지, 사지

충북 중원군 동량읍 하천리에 위치한 정토사지에서도 ‘大禪師淵巨□□智成燔造’명 고려기와가 출토되었다.<sup>33)</sup> 중간에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있어 확정하기 어렵다. 문장의 구성은 직책(大禪師, □□[禪師?]),

30) 김풍식·이재준, 1979, 『충북의 기와』, 유림사.

31)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元香寺』學術調查報告 第44冊.

32)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33) 노명호 외, 2004,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인명(淵巨, □□[인명?], 智成), 종결어(燔造)로 되어 있다. 명문의 내용은 ‘대선사 淵巨·□□·智成이 번조하였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 3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동일 유적에서 2행 종서로 명문이 배열된 ‘禪師 惟素’명 기와도 있기 때문에 ‘□□’부분은 ‘禪師’로 추독될 여지도 생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명은 2명이 된다. 다만 대선사 혹은 선사의 직책을 가진 승려가 직접 번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작업을 독려하며 佛事를 지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 20. 원주 안창리 유적, 요지

원주 안창리 유적은 기와를 생산한 곳으로 통일신라 4기, 고려시대 20기, 조선시대 1기로 확인되었다.<sup>34)</sup> 그중 고려시대 19호 가마 및 폐기장에서 18점이 출토된 ‘興法寺惠杰造’명 기와는 인근 흥법사지에서도 출토되어 수급관계가 확인되었다. 명문의 구성은 사찰명(興法寺), 인명(惠杰), 종결어(造)로 되어 있고, 명문의 내용은 ‘흥법사의 (승려) 혜걸이 (기와를) 만들었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혜걸은 승려로서 흥법사에 소속된 와장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일한 타날판으로 제작한 기와가 여주 고달사지에서도 확인되어 주목된다.<sup>35)</sup> 사찰명 뒤에 ‘造瓦’ 등의 명문이 확인되는 시기는 주로 10세기말에서 13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sup>36)</sup>

## 21. 산청 단속사지, 사지

단속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14점의 명문와가 수습되었다.<sup>37)</sup> ‘大近’

34)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원주 안창리 유적』 遺蹟調査報告 第12冊.

35) 이인경, 2011, 「고려시대 기와가마 내부출토 기와연구 -원주 안창리유적 중심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36) 柳煥星, 2007, 「「나말여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山淸斷俗寺址』, 77쪽.

‘大近尙吉造’, ‘尙吉造’ 등이 확인된다. ‘大近’은 ‘大匠’의 오독이다. 따라서 ‘大近尙吉造’는 ‘大匠尙吉造’로 읽어야 옳다. 방향의 굵은 격자문이 새겨진 세장방향의 타날판을 사용하여 문자를 찍었다.

## 22. 영암 천황사, 사지

영암군 월출산 사자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獅子寺’ 명 기와가 출토되어 사명을 알게 되었다. 이외 명문기와는 ‘庚戌(?)二月十四日’, ‘大匠□明’, ‘丁卯上只寺成’ 등이 출토되었다.<sup>38)</sup>

## 23. 논산 개태사, 사지

논산군에서 개태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대책을 강구하고자 충남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39)</sup> 명문기와는 ‘開泰’, ‘靑…造’, ‘板寶大匠崇□’, ‘信信當’, ‘大’, ‘卍’, 판독불가 등 7종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板寶大匠崇□’명 기와는 금당지에서 출토되었다.崇□은 와장의 인명으로 보인다.

## 24. 용인 마북리 중세취락, 사지

근린생활 시설 및 우림아파트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 구제발굴하였다.<sup>40)</sup>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시간 동안 인간의 흔적이 누적된 곳이다. 이 지역에 용구현의 치소가 있었다. A지구 건물지는 중심연대가 12세기로 추정되며, 사찰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1)</sup> 명문와는 ‘戊申造上…’, ‘大匠之末三造瑞峯’ 등이 출토되었다. 戊申명 기와는 용인 마북리 건물지, 용인 마북리 사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38) 順天大博物館, 2005a, 『靈巖 天皇寺 I』, 學術資料叢書 第54冊; 順天大博物館, 2005b, 『靈巖 天皇寺 II』, 學術資料叢書 第55冊.

39) 忠南大學校博物館·論山郡, 1993, 『開泰寺 I』.

40)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용인 서봉사지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I;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서봉사지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II.

41)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용인 마북동 중세취락』.

## 25. 경주 고선사지, 사지

1975년 경주 일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덕동댐을 건설하면서 고선사지 수몰이 결정되었다. 이로인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삼층석탑, 귀부, 석등 대석, 주춧돌, 장대석 등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옮겨져 있다. 문자기와는 ‘大(?)王’, ‘大近仁’, ‘徘徊右’ 등 3점이 출토되었다.<sup>42)</sup> ‘大近仁’명 기와의 경우 상하단부가 결실된 상태여서 전문을 알기 어렵지만 ‘大匠仁□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仁□는 인명으로 보이며, □의 우변에 日자가 희미하게 관찰된다. 산청 단속사지에서 출토된 ‘大匠尙吉造’명 기와를 고려하면 仁□는 인명이다.

## 26. 파주 혜음원지, 역원

혜음원지는 원지와 사지, 행궁지로 구역이 구분된다. 5차에 걸친 조사결과 9단 건물지와 행궁지는 드러났으나 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혜음원은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예종 17년(1122)에 건립된 숙박 시설이다. 또한 국왕 행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원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惠陰寺’명과 함께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學明’명 기와도 출토되었다. ‘學明’은 와장이다.

### III. 와장의 유형

명문와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창건시기나 중수시기, 시주자, 기와의 제작자에 대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 사실 기와는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태토의 준비, 성형, 건조, 소성 등 다소 복잡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따라서 각 단계의 공정에는 일정한 조

42) 文化財管理局·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7, 『고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직체가 필요하다. 명문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와장의 유형은 정부의 간섭을 받는 관장, 瓦所에 속한 장인, 사찰에 속한 僧匠, 고용이나 판매용의 기와를 제작한 私匠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와 장인이 국가로부터 직급을 받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장인의 명칭에서 大匠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바, 이는 瓦所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와소가 해체되기 이전에는 관장, 해체 이후에는 사장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官匠

여기서 관장이란 將作監에 소속되어 궁실과 관사의 조영, 중수 등을 담당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諸窯直<sup>43)</sup>과 六窯直<sup>44)</sup>에 대한 녹봉 지불규정이 확인된다. 이들은 크게 보아 장작감의 간섭을 받으면서 기와 가마를 감독했던 職掌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정부로서는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각 지역 호족 산하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던 공인들을 수취 대상으로서 齊一化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선상에서 공장들의 법제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수공업의 役을 확보하려 하였다. 각 공장의 파악은 출신 지역별로 ‘工匠案’, ‘百工案牘’이라는 籍의 작성으로 귀결되었다.<sup>45)</sup> 한편 장흥 상방촌A 유적 출토 京瓦匠의 사례를 미루어 보면 京匠, 外匠의 구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사라는 직함을 가진 와공도 확인된다. 사실 이 직함은 신라시대 유력 진골귀족의 저택에 소속된 공인 중에 관등을 가지면서 박사, 백사라 불리는 장인이 있었다.<sup>46)</sup> 관등을 가진 博士나 伯士는 4~6두품에 해당하는 신분이다. 본래 박사는 官匠에게 한정되어 사용되던 칭호였다.<sup>47)</sup> 그런데 박사란 명칭이 확대되면서 音相似로 백사도 아울러 사용

43) 『高麗史』卷80, 志34 食貨3; 權務官祿文宗三十年定, 八石十斗. 諸窯直.

44) 『高麗史』卷80, 志34 食貨3; 仁宗朝 更定, 八石十斗. 六窯直.

45) 徐聖鎬, 1992,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韓國史論』 27(서울대 국사학과), 89~90쪽.

46) 박남수, 2009,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47)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鉞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되고, 중앙관사의 공장만 아니라 지방의 공장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sup>48)</sup> 말하자면 박사나 백사의 경우 중앙이나 지방에 속한 관속 장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진골귀족의 저택에 속한 장인역시 관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官匠이다. 한편 지방에는 지방관아에 소속된 大匠이라는 장인도 검출된다.<sup>49)</sup> 명문와에서 관장의 범위로 다룰 수 있는 정보는 장인의 명칭, 인명이다. 장인의 명칭의 경우 ‘竹州瓦草匠’, ‘伯士’, ‘大匠’, ‘京瓦匠’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官匠이 활동한 범위 속에 瓦所도 있다. 고려시대의 所는 행정적으로는 지방 군현의 하부기구로 속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 공부의 부과도 직접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sup>50)</sup> 말하자면 군현제는 정치제도의 일부이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민중지배의 실현수단이자,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수취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와소는 문헌상 栗谷瓦所가 확인되며, 대전 구완동 요지를 와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51)</sup> 고려 정부는 기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중앙의 감독관청과 관리를 두고 육요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흔적은 고려 궁성에 기와를 공급한 판적요 등에서 그 편린이 확인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와소를 지정하여 관리로 하여금 와공을 통해 정기적인 공급을 받았다.<sup>52)</sup> 기와 장인 가운데 大匠이 확인된다. 大匠僧의 경우 신분이 승려가 분명하며, 大匠의 경우라도 범명으로 보이는 경우 승려로 볼 수 있다. 이외에 大匠은 기와장인이 관직을 받은 예가 없다는 점에서 주현에 속한 외공장 혹은 와소에 소속된 장인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48) 김창겸, 2004, 「미륵사지 석탑 발견 명문의 대백사봉성」 『백산학보』 70, 245쪽.

49)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鉞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50) 北村秀人, 1969,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 45~46쪽.

51)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83쪽.

52)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57쪽.

한편 ‘京瓦匠’은 ‘外瓦匠’의 상대적인 표현일 것이며,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에 속한 외장의 흔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래 <표 1>은 관장과 관련된 명문외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관장 관련 명문외

| 연호/간지             | 장인명칭        | 인명           | 종결어       | 출토지   |
|-------------------|-------------|--------------|-----------|---|
| (發令)戊午年<br>年乙酉八月日 | 伯士          | 必(攸?)毛<br>能達 | 瓦草作<br>瓦草 | 안성 봉업사지   |
| (發令)戊午年           | 伯士          | 必(攸?)毛       | 瓦草作       | 안성 장릉리사지  |
| 太平興國七年<br>/壬午三月日  | 竹州瓦草匠       | 水鳥,水流        | 矣         | 영동 계산리건물지<br>永同 邑城<br>永同 錦城寺<br>安城 奉業寺址<br>安城 長陵里寺址 |
|                   | 伯士          |              |           | 안성 죽주사지   |
|                   | 伯士          | 哀宣,逵         |           | 하남 교산동건물지   |
| 天慶三年<br>/癸巳年四月日   |             | 尤造           | 造管        | 양양 진전사지   |
|                   | 京瓦匠         | 莫志           |           | 장흥 상방촌A   |
|                   | 板積窯匠<br>德水匠 | 幸春<br>只○     |           | 개성 고려궁성   |
| 庚申二月三十日<br>惠陰寺    | 匠           | 學明           | 造         | 과주 혜음원지   |

53)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58쪽.

아래 <그림 1>은 관장 관련 명문기와의 탁본을 정리한 것이다.



안성 봉업사지



경주 고선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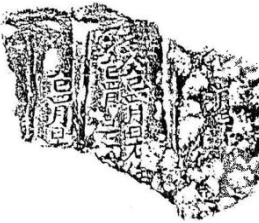
영동 계산리유적



안성 죽주산성



하남 교산동  
건물지



양양 진전사지



장흥 상방촌A



과주 혜음원지

<그림 1> 관장 관련 명문기와

## 2. 僧匠

僧匠은 승려로서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원에 부속된 승려조직이라는 점에서 隨院僧徒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수원승도와 관련된 일련의 성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農奴의·佃戶의 존재로 보는 견해와 별무반 편성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私兵적 존재로 보는 견해로 양분된다. 그리고 정치사적 입장에서 사원의 은닉된 군사력으로 보는 견해와 실질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원을 유지·보수하거나 생산 기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sup>54)</sup> 사실 수원승도는 사원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발생하는 제반 작업과 수공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종교활동 혹은 수행활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전각이나 기념물을 조영,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원이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종군승, 사역승, 공장승, 승장 등 기능에 의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원승도의 역할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강조한 견해를 따르되, 사원에 속한 장인이라는 의미에서 승장이란 틀에서 다루어 보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원 승장 유형의 기와들은 사찰의 명칭이 동반되어 있고, 장인의 명칭은 와장승, 대선사, 선사, 대장, 대장승 등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용어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인명은 범명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는 출토지는 사찰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승장과 관련된 명문와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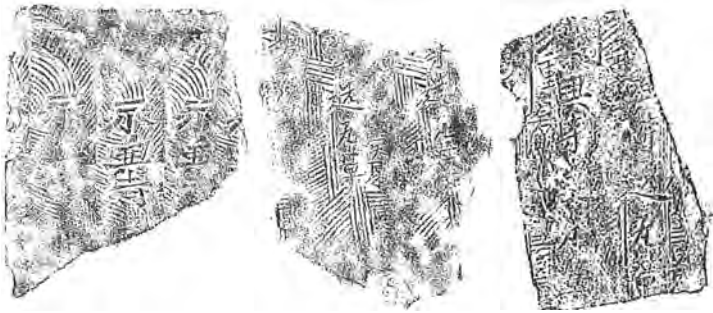
승장과 관련된 장인 명칭을 보면 와장승, 대장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인명을 보면 범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에서 그들의 신분을 승려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장을 사용하더라도 범명일 경우에는 승장의 범주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54) 全暎俊, 2004, 「麗末鮮初 國家 土木工事와 供役僧」 『東國史學』 第40輯.

&lt;표 2&gt; 승장 관련 명문와

| 연호/간지           | 사찰명<br>/목적어              | 장인명칭                      | 인명           | 종결<br>어 | 출토지                    |
|-----------------|--------------------------|---------------------------|--------------|---------|------------------------|
|                 | 永興寺<br>/重創               |                           | 青元           | 造瓦<br>草 | 보령 천방유적                |
|                 | 元香寺                      | 瓦匠僧                       | 順文           |         | 여주 원향사지                |
|                 | 興法寺                      |                           | 惠杰           | 造       | 원주 안창리 19호가마           |
|                 |                          | 大禪師,<br>☒☒                | 淵巨<br>智成     | 燔造      | 중원 정토사지                |
|                 |                          | 禪師                        | 惟素           |         |                        |
| 大定十二年<br>/壬寅四月日 | ☒☒☒<br>☒☒☒<br>☒☒金<br>堂改蓋 | ☒☒☒監<br>役副都監<br>大師,<br>大匠 | 性林<br><br>暢交 |         | 중원 崇善寺址                |
| 癸卯三月            |                          | 大匠                        | 惠印           |         | 강진 사당리와요지              |
| 三月              |                          | 大匠                        | 惠-           |         | 진도 용장산성                |
| 癸卯              |                          |                           |              |         | 완도 청해진                 |
| 癸卯三月            |                          | 大匠                        | 惠印           |         | 완도 법화사지                |
|                 |                          | 大匠                        | ☒明           |         |                        |
|                 |                          | 大匠                        | ☒明           |         |                        |
|                 | 香水寺<br>瓦                 | 大☒(匠?)                    | 金            |         | 오산 가장동유적               |
|                 | 瑞峯                       | 大匠                        | 之 才<br>三     | 造       | 용인 마북동 증세취락<br>용인 서봉사지 |
|                 |                          | 大匠僧                       | 守山           |         | 대전 상대-중골유적             |
|                 |                          | 板寶大匠                      | 崇☒           |         | 논산 개태사                 |
| 辛丑二月七日          |                          | 瓦匠                        | □            |         | 군위 인각사                 |
|                 |                          | 大匠                        | ☒☒           |         | 괴산 외사리사지               |
| 戊申年二月日          |                          | 大匠                        | 隣才           | 造瓦      | 익산 미륵사지                |
| 戊申年二月日          |                          | 大匠                        | 以米           | 造       | 익산 오금산성                |
|                 |                          | 大匠                        | 仁☒           |         | 경주 고선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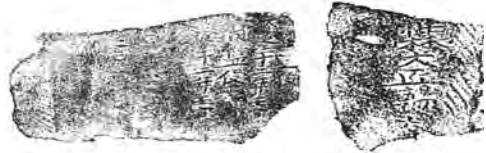
아래 <그림 2>는 승장 관련 명문와의 탁본을 정리한 것이다.



보령 천방유적



여주 원향사지



중원 崇善寺址



완도 법화사지



오산 가장동



용인 마북리  
중세취락



용인 마북리  
사지



논산 개태사



산청 단속사지



군위 인각사



익산 미륵사지



원주 안창리 유적



용인 전대리 · 유윤리

<그림 2> 승장 관련 명문와

사실 고려시대 사찰의 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도인 개경에만 300여 개소에 달하였다. 당시 사찰의 수는 전국적으로 3,000여개소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sup>55)</sup> 사찰수로만 보더라도 불교 국가의 이미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사찰은 기와 건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와 유지를 위한 기와가 항상 필요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사찰에는 와장이 활동하면서 소속 사찰이나 같은 종파의 사찰에서 번와 佛事가 있게되면 사역될 여지가 컸을 것이다. 한편 승장인 惠印의 경우 행동반경이 꽤 넓게 확인된다. 그는 사찰을 비롯하여 관방유적에 까지 기와제작에 참여했던 것 같다. 이는 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찰에 사역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도 필요에 따라 동원되었음을 웅변한다.

### 3. 私匠

私匠의 경우 공장안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기와생산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이래 국가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와소 생산체제가 이완되면서 부터이다. 와소민의 유망은 요역 및 별공 등 과중한 부세 때문이었다. 기와 생산에 공권력의 개입이 이완되자 私窯가 등장했던 것 같다. 고려 충선왕 원년(1309) 왕은 부자들에게 명을 내려 선의문 안의 빈 땅에 길을 따라 기와집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5부의 민가는 모두 기와를 덮으라고 하고 私窯를 금지하지 말라고 하였다.<sup>56)</sup> 이는 기와의 수급에 관청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기와의 구입과 관련하여 ‘속동와징(贖銅瓦徵)이 유의된다. 이는 12세기에 한정되어 사용된 용어이며, 죄인의 속량에 구리와 기와가 등장한다.<sup>57)</sup> 기와가 구입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판매의 대상으로

55) 李炳熙, 1993,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56) 『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 元年; 八月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 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盖以瓦. 命毋禁私窯.

57)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63쪽.

서 기와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우라소에성에서 출토된 고려와장명 기와가 유의된다. 이 기와는 진도 용장성 출토 기와와 문양의 의장성이 매우 유사하며, 연호를 취하지 않고 간지만 사용한 것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 1393년일 경우 조선건국의 초기로 유이민 기술자 집단의 이주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1273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up>58)</sup> 다만 이 기와를 追究하는데 있어 가장 큰 난제는 고려의 장인들이 소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와요지의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와를 제작한 와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진작 인명이나 제작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와장의 국명을 구체적으로 적기했다는 점에서 이 기와의 국제성이 읽혀진다. 다시말해 이 기와는 고려라는 국명이 기와에 표기될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기와의 소비지는 적어도 국내용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기와가 판매의 대상이었음을 시사한다. 아래 <표 3>은 사장과 관련된 명문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사장 관련 명문와

| 연호/간지           | 장인명칭 | 인명 | 종결어  | 출토지       |
|-----------------|------|----|------|-----------|
| 癸酉年             | 高麗瓦匠 |    | 造    | 日本 沖繩 浦添城 |
| 天慶三年<br>/癸巳年四月日 |      | 尤造 | □□造管 | 양양 진전사지   |

우선 직책은 대부분 와장이나 대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기와의 대부분은 고려 후기에 속하는 것이며, 이때는 와소가 해체된 상태였다. 따라서 장인의 명칭은 와소 활동 당시의 직책을 관성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특히 이름을 보면 대부분 속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이들을 승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장들은 기와의 수요가 많은 관공서나 사찰 등지에서 기와를 공급하면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58) 윤용혁, 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아래 <그림 3>은 사장 관련 명문와의 탁본을 정리한 것이다.



日本 沖繩 浦添城

<그림 3> 사장 관련 명문와

지금까지 고려시대 와장이 확인되는 명문와를 중심으로 와장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기와의 제작과 관련된 직함을 정리해 보면 瓦匠, 瓦草匠, 伯土, 大匠, 瓦匠僧, 大禪師, 禪師, 大匠僧 등이 확인된다. 여기서 大禪師, 禪師는 선종의 법계이다. 선종은 승과에 합격한 후부터 中德,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 禪師, 大禪師 순으로 승급한다. 따라서 大禪師, 禪師는 승장이라가 보다 작업을 독려한 인물 혹은 시주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瓦匠, 瓦草匠, 伯土, 大匠 등은 官에 속하여 기와를 생산한 소위 官屬匠人 유형, 瓦匠僧, 大匠僧 등은 승려나 사찰에 관계된 인물들에 의해 생산되는 寺院僧匠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관장이나 승장에 속하지 않는 유형은 私匠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한다. 예컨대 京瓦匠, 伯土, 大匠 등은 국가에 속한 장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진, 완도 등지에서 출토된 大匠 惠印의 경우 이름으로 보면 승려일 가능성이 있다. 大匠僧의 경우 직책에서부터 승장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은 인물군들을 사장의 범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IV. 명문와의 사적 의미

고려시대 불교의 융성은 수많은 사찰 조영을 야기시켰다. 태조 왕건이 유훈으로 무분별한 사찰의 건립자제를 경계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예컨대 성종 원년에 불사의 조영이 수가 많아 중외의 승도가 다투어 州郡의 長吏를 급하게 사역시켜 민이 괴로웠다는 사실,<sup>59)</sup> 공양왕대 민가 40여호를 부수어 절, 탑으로 修廣하고, 자재를 나르느라 사람과 가축이 모두 병이 들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사<sup>60)</sup>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 조영의 왕성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전국에 걸쳐 기와가 필요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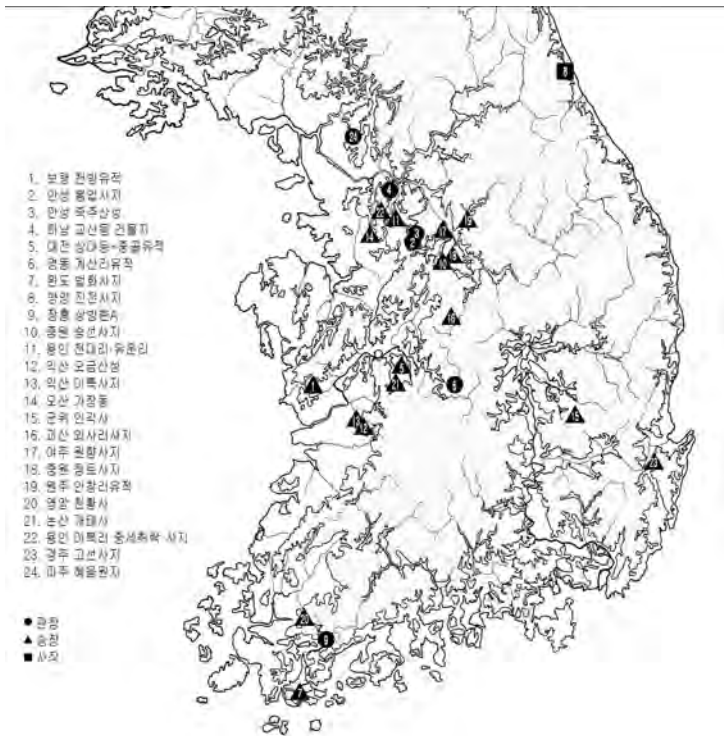
사실 고려는 지방세력의 비중에 따라 군현의 격과 명칭을 정하였다. 이때 중요한 판정기준은 전정과 호구, 교통의 요지, 전략적 거점, 생산력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그런데 이 보다 못한 지역은 격하되거나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부곡이나 소로 편제시켜버렸다. 이때 부곡이나 소에 종속된 인물들이 바로 문자 기와에 보이는 관장 부류의 군상으로 여겨진다. 사실 군현제는 중앙에 대비되는 정치제도의 일부를 넘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역역을 징발하고, 생산품을 수취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더 본질적인 면이 아니었을까한다.

고려시대 장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百工·工匠·工技·工人·大匠·太匠·匠人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그중 관청을 통해 장인을 통솔하는 가장 상위의 장인은 지유라 불렸다. 이러한 장인을 가리키는 용어는 고려전기에 대백사, 백사 등으로 명기되었다. 이후 장인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大匠으로 표기되었다. 대장도 어느 정도 서열이 확인되는데, ‘上大匠’·‘三大匠’·‘大匠’ 등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었다.<sup>61)</sup> 사실 박사의

59) 『高麗史』卷85, 志39 刑法2 禁令; 世俗, 以種善爲名, 各隨所願, 營造佛宇, 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 競行營造, 普勸州郡長吏, 徵民役使, 急於公役, 民甚苦之.

60) 『高麗史』卷120, 列傳33 諸臣 金自粹; 殿下卽位之始, 修廣演福寺塔, 破民家三四十戶, 今又大起浮屠, 屢興土木之役. 厥今農務方劇, 而交州一道, 斫木輸材, 人畜盡悴, 曾不小恤.

시원은 신라시대 관장에게 주어진 명칭에서 유래하며, 대체로 4~6두 품의 신분층에 해당되었다.<sup>62)</sup> 관장이 동반된 명문와의 특징은 제작시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승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4> 고려시대 와장의 분포

사실 고려시대 와장들은 양인이지만 친직에 종사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이른바 身良役賤, 말하자면 신분은 양인이지만 부담하는

61) 홍영의, 2016, 「고려 금속제 불구류 명문에 보이는 경외 장인의 제작활동」, 『한국 중세사연구』46.

62)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紱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13~16쪽.

역은 천한계층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조선초 정호, 백정, 잡척을 모두 양인으로 齊一化하기 전까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와에 동원된 와공의 입장에서는 납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기와는 그 자체 완결된 제품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에서 수만매가 동반되어야 한다. 기와는 1천장을 1訃이라고 하며, 높은 누리라고도 한다. 주로 1기의 가마에서 한 번의 번조로 생산되는 양을 의미한다.<sup>63)</sup> 따라서 기와건물의 지붕에 올리려면 수십번의 번조를 통해 기와를 생산하여야 한다. 혹은 민가의 기와를 전용하거나 늑탈을 통해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기와의 정상적인 공급을 고려하면 납품기일을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제작일자, 제작자의 인명을 명기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승장의 경우 사찰에서 사역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다른 공역에 투입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찰이나 공역에 사역되는 인물들은 부곡이나 소에 배속된 와공들이었다. 이들은 언제든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된 존재였다. 향이나 부곡을 편성할 때 주요한 기준은 전정과 호구인데, 이러한 지방제도의 편성원리는 본질적으로 역역징발, 생산품 수취로 귀결되는 대민지배의 실현수단이다. 그러므로 지방제도인 군현제의 개편은 토지와 수치제도의 정비와 늘 맞물려 진행되어 온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국가 운영에 긴요한 각종 수공업, 광공업, 농수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所로 편성했다. 기와 생산과 관련된 所로는 고려시대 충북 영동에 위치한 栗谷瓦所가 유일하다.<sup>64)</sup> 고고학적 정황으로 대전 구완동 와오지를 와소로 비정하기도 하나,<sup>65)</sup>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수 행정구역인 부곡, 향, 소 등은 주로 산간 오지나 벽촌 등 군과 현의 경계를 넘은 월경처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sup>66)</sup> 대부분의 와오지

63) 이동주, 2015, 「신라 하대 경장(京匠)의 동향-특히 와장(瓦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권 4호, 12쪽.

64) 『世宗實錄』 卷149,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永同縣; 栗谷瓦所姓一, 廉

65)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가 대개 산곡간을 끼고 있는 점은 당시 수공업 생산 환경이 하나의 단위 공간을 형성하여 생산하였음을 암시한다.

私匠의 등장은 육요, 와소 등 공적 생산체제가 이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와해는 과중한 수탈과 권력자의 능탈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옥간요명 기와는 가마의 이름을 적기하고 있다는 측면이 흥미롭다. 비록 와장의 이름은 적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장이 운영한 가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기와는 판매와 구매의 대상이었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죄인의 속량에도 기와가 사용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례가 ‘贖銅瓦徵’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관장과 승장들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별와요로 대표되는 기와가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국가의 조와체계에 흡수된 인물이 된다.

#### IV. 맺음말

문헌이 영성한 한국중세사의 사회상 복원에 명문와는 1차 사료라는 강점이 있다. 특히 분식이나 과장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한걸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국에 걸쳐 출토되는 고려시대 명문와 가운데 와장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려서 정리해보았다.

우선 명문기와에 보이는 와장은 크게 관장, 승장, 사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의 수공업 생산체제는 관영, 사원, 所 등의 특수촌락, 민간 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영과 소는 관장, 사원은 승장, 민간은 사장에 각각 대응된다. 관장의 경우 직책이 백사, 대장 등이 확인된다. 백사는 博士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기원이 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의 경우 와소에 편입되어 생산에 종사한 기술자로 판단된다.

---

66) 박종기, 2005,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202쪽.

와장에게 직책을 내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 공적 영역에서 생산을 담당한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장흥 상방촌A '京瓦匠'의 용례처럼 중앙 관청에 소속된 인물도 확인된다.

승장의 경우 大師, 重大師, 大禪師 등의 승계를 소지한 인물들도 확인된다. 다만 이들은 직접적인 생산에 관여했다기 보다 傭人이나 匠人들을 통제하며 기와 생산을 독려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사장의 경우 육요나 와소의 이완을 통해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중한 수탈, 권력자의 점탈 등은 와소의 해체를 가속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와생산이 제한되자 죄인의 속량에 기와를 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급기야 기와는 판매의 대상이 되었고, 오키나와의 우라소에성의 고려 와장 기와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투고일: 2021.11.21,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 2. 단행본

김풍식·이재준, 1979, 『충북의 기와』, 유림사.

노명호 외, 2004,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박남수, 2009,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박종기, 2005,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박종기, 2012,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李炳熙, 1993,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 3. 연구논문

고용규, 2007,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고용규, 2008, 「장흥 상방촌 유적의 성격」 『장흥 신월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吉村武彦, 2003, 「墨書土器研究の現在-データベース化された墨書土器-」, 『駿台史學』 117.

김갑동, 2011, 「고려시대 유성현의 지방세력과 상대동 유적」, 『한국중세사연구』 31.

- 김창겸, 2004, 「미륵사지 석탑 발견 명문의 대백사봉성」, 『백산학보』 70.
- 菱田哲郎 外, 1994,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岬山寺所用瓦の考察』, 靑丘學術論集4.
-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 北村秀人, 1969,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
- 徐聖鎬, 1992,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韓國史論』 27(서울대 국사학과).
- 徐五善, 1985,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柳煥星, 2007, 「나말여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柳煥星, 2010, 「慶州 出土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新羅史學報』 19.
- 윤용혁, 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 이동주, 2013, 「경산 증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 -문자 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古文化』 82.
- 이동주, 2015, 「신라 하대 경장(京匠)의 동향-특히 와장(瓦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권 4호.
- 이인경, 2011, 「고려시대 기와가마 내부출토 기와연구 -원주 안창리유적 중심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 이흥직, 1968, 「琉球에서 發見된 「高麗瓦匠」 在銘瓦」, 『미술사학연구』 9권 7호.
- 全暎俊, 2004, 「麗末鮮初 國家 土木工事와 供役僧」, 『東國史學』 第40輯.
- 정해준, 2017, 「대전 상대동유적(SD 1호, 2호) 발굴조사 성과」, 『대

전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 2017년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학술대회 자료집.

홍영의, 2016, 「고려 금속제 불구류 명문에 보이는 경의 장인의 제작 활동」, 『한국 중세사연구』46.

홍영의, 2018,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명문기와 현황과 과제」, 『한국 중세고고학』 4.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 4. 발굴조사 보고서 (본문에 명기, 생략)